

홍난파의 러시아소설 번역 연구 (1)*

-『첫사랑』의 일본어 저본과 번역의 계보를 중심으로 -

윤경애**

|| 차례 ||

- I. 서론
- II. 투르게네프 소설 번역의 계보
- III. 홍난파의 『첫사랑』 번역 양상과 일본어 저본
- IV. 홍난파의 『첫사랑』 번역에 나타난 특징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홍난파가 번역한 러시아 소설 번역서 가운데 투르게네프 『첫사랑』의 일본어 저본을 밝히는 서지연구를 중심으로, 원본에서 영어-일본어-한국어 번역으로 이어지는 번역의 계보, 저본과 한국어 번역본의 텍스트 비교를 통한 번역 양상과 특징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홍난파는 근대 한국의 서양음악 개척자이며 수많은 명곡을 만든 음악가로 유명하나, 세계적 걸작 소설을 다수 번역한 번역가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투르게네프와 도스토옙스키의 중, 장편 소설을 최초로 완역하였고 식민지 시기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유일하게 번역하였으며 톨스토이의 단편을 번역하기도 하는 등 러시아 소설의 번역과 수용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홍난파의 번역은 원본이나 영역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경유한 중역이며 지나치게 축약되어있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의 잘못된 일본어 저본 연구에서

* 본고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8S1A5B5A01037802)이며, 2018년 12월 22일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제327차)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후 연구원

기인한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홍난파는 일본어 번역본을 현대적 번역 방식과 같이 일본어 저본에 충실히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본을 참고하여 일본어 번역본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홍난파의 러시아소설 번역은 개화기나 1910년대의 축약, 번안과 같은 번역 방식이 아닌, 저본에 충실한 현대적 번역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홍난파, 투르게네프, 첫사랑, 후타바테이 시메이, 근대 번역사, 콘스탄스 가넷

I. 서론

홍난파(본명 홍영후)는 한국에서 최초로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며 한국 근대음악의 지평을 개척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¹⁾. 하지만 홍난파가 1920년대를 대표하는 번역가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²⁾. 홍난파의 번역서인 『청년입

-
- 1) 김창욱, 「홍난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음악사학보』 제29집, 한국음악사학회, 2002, pp.193-194.
 - 2) 홍난파의 번역작품 목록은 1960년대부터 한국 근대 번역서를 조사하여 근대 번역사를 망라한 김병철의 연구서에 일본어 저본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이 저서 외에 번역가로서의 홍난파에 주목하고 그의 작품을 소개한 연구로 박진영(「홍난파와 번역가의 탄생」, 『코기토』 제71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pp.61-86; 「번역가의 탄생과 문학청년 홍난파의 초상」, 『근대서지』 제8집, 근대서지학회, 2014, pp.181-202)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매일신보』에 연재된 홍난파의 작품 연구로 이희정(「1920년대 초기의 『매일신보』와 홍난파 문학」, 『어문학』 제98집, 한국어문학회, 2007, pp.239-268)의 연구가, 그리고 홍난파의 작품 『허영』에 대한 연구로 이재춘(「홍난파의 [허영] 연구」, 『우리말글』 제7집, 우리말글학회, 1989, pp.143-154)과 강현조(<보환연>과 <허영>의 동일성 및 번안 문학적 성격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제4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pp.87-116)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지편-자조론』(1923, 박문서관)과 『매국노의 자』(1923, 회동서관) 뒤편 광고에 실린 그의 저역서 목록을 보면 출판이 확인된 작품만 창작이 4편, 번역이 8편이며 출판물이 확인되지 않은 『리지아 공주』, 『세계문화단편집』, 『근대극선집』을 포함하면 번역서만 11편에 이른다³⁾. 그리고 저역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김병철(1975)의 근대 번역서 조사로 『나나』(1924, 박문서관)가 발견되었다. 홍난파의 번역서 목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⁴⁾.

〈표 1〉 홍난파의 번역서 목록

번호	제목	출판사	출판시기	원작자
1	첫사랑	한일서점	1921	투르게네프
2	어대로그나?	광익서관	1921	시엔키에비치
3	사랑의 눈물	박문서관	1922	뤼세
4	애사	박문서관	1922	위고
5	매국노의 자	회동서관	1923	주더만

3) 도스토옙스키의 『청춘의 사랑』은 광고의 저역서 목록에 『貧者의 사랑』(近刊)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출판 제목은 『청춘의 사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세계문화단편집』(近刊)은 현재 단국대학교 홍난파 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발표 원고 『다복한 사형수』로 추정된다. 원고 표지에 검정 일자와 인장까지 찍혀 있으나 출판물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복한 사형수』에는 톨스토이, 체호프, 와일드, 모파상, 스트린드베르히, 졸라, 슈니츨러, 투르게네프, 베데킨트, 메리메, 가르신의 단편 11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톨스토이와 모파상의 단편이 잡지에 게재되었다. 이 외에 음악가들과 그들의 주요 작품에 대한 글을 모은 음악 산문집 『음악만필』(1938, 영창서관)을 집필하였고, 1915년부터 1940년까지 백여 편이 넘는 수필과 평론을 각종 신문, 잡지에 발표하였다.

4) 김병철, 위의 책, pp.937-1026; 오창은, 안용희, 강우규, 「국립한국문학관 자료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7, pp.216-237.

6	장발장의 설음	박문서관	1923	위고
7	청년입지편-자조론	박문서관	1923	스마일스
8	청춘의 사랑	신명서림	1923	도스토옙스키
9	나나	박문서관	1924	줄라

단행본 외에 신문, 잡지에 연재된 홍난파의 번역으로 모파상의 「浮浪者」(『新天地』2권 4호, 1922.11), 시엔키에비치의 「어디로가나?」(『매일신보』1920.3.20.-1920.5.5.), 톨스토이의 「多福한死刑囚」(『青年』6권 2호, 1926.2)가 있다⁵⁾. 목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작품의 다양성 면에서 나, 중, 장편 소설을 줄거리나 일부분만을 짧게 번역하여 잡지 등에 소개하는 방식이 아닌 단행본으로 출판한 번역이라는 면에서 홍난파는 1920년대 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 전체를 통틀어 최대의 번역가라고 평가할 만하다⁶⁾. 하지만 번역 방법과 수준에 대해 김병철은 홍난파의 번역과 일본어 저본을 비교하여 초역, 경개역, 의역 등 역자의 주관에 의해 좌우되는 방법으로 옮겨진, 번역문학의 정도(正道)상에서 벗어난 번역으로 평가하였으며⁷⁾, 번역본 각각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5) 홍난파는 자신이 창간한 잡지 『삼광』에 1919년부터 1920년까지 도스토옙스키의 「사랑하는 벗에게」(이후 「貧人」으로 바뀜)를 번역, 연재하였으나 잡지의 폐간으로 끝맺지 못하고 1923년 『청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6) 1920년대 가장 많은 작품을 번역한 번역가는 김억으로 모두 10편을 번역했으며 홍난파가 9편, 이상수가 6편을 번역했다. 김억이 가장 많은 작품을 번역하기는 했지만 김병철은 홍난파의 작품이 모두가 세계명작에 드는 작품들이라는 면에서 홍난파의 작품 선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위의 책, pp.690-691), 박진영 또한 홍난파를 1920년대 초반 최대의 전문 번역가로 평가하고 있다(위의 논문, 2011, p.61). 홍난파가 번역한 작품들은 김억이나 이상수 등 당대 다른 번역가들의 작품과 달리 모두 중, 장편이며 다양한 문호의 대표적 걸작을 단행본으로 비교적 원작에 충실하게 변했다는 점에서 1920년대만이 아니라 식민지시기를 통틀어 비견할 다른 번역가를 찾을 수 없다.

7) 김병철, 위의 책, p.690.

에서 『근대번역사연구』에 실려 있는 이와 같은 평가는 현재도 정설처럼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근대번역사연구』에 저본 미상으로 되어 있는 홍난파의 일본어 번역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난파 번역본의 저본으로 기술되어 있는 일본어 번역본들조차 대부분 실제 저본이 아닌 다른 일역본으로 잘못 조사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필자가 발견한 일본어 저본과 홍난파의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한 결과 번역 방법에서도 『근대번역사연구』의 평가와 달리 문단과 문장, 어휘 수준에서까지 현대의 번역 방식과 유사한 저본 중시의 번역 방법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⁸⁾. 저본 미상이나 잘못 조사된 저본을 바탕으로 한국어 번역본과 ‘원본’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한국어 번역자의 번역목적과 번역 방법, 그리고 그 ‘仲譯’ 너머 서구문학의 번역의 계보와 배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번역사연구』에서 정전과 같이 인용되고 있는 연구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먼저 홍난파의 러시아 소설 번역의 정확한 저본을 조사하여 밝히고 저본과 한국어 번역본의 비교를 통해 번역 양상과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홍난파는 개화기와 식민지시기를 통틀어 가장 다양한 러시아 작가의 소설을 번역했다. 투르게네프와 도스토옙스키의 중, 장편 소설, 톨스토이의 단편을 번역하였고, 그의 미발표 원고 『다복한 사형수』에는 가르신과 체홉, 투르게네프의 단편도 번역되어 있다. 러시아 문학의 번역은 일본을 매개로 한 서양문화 수용이라는 한국 근대 번역사 및 문학 전개의 일반적인

8) 『애사』와 『장발장의 설움』의 경우 『근대번역사연구』에서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의 『噫無情』을 축약하여 번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도쿠다 슈세이(徳田秋聲)가 1914년 번역한 『西洋大著物語叢書第三編 哀史(レ・ミゼラブル)』를 저본으로 충실히 번역한 것이다(윤경애, 「홍난파의 [레 미제라블] 번역 양상과 번역의 계보 고찰, 『일본어학연구』 제59집, 한국일본어학회, 2019, pp.145-148).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번역과 수용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홍난파의 러시아 소설 번역 고찰은 이와 같은 번역의 계보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난파의 러시아 소설 번역에 대한 첫 연구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홍난파가 번역한 투르게네프 『첫사랑』 번역의 서지적 연구 및 번역의 계보와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원본으로부터 영어번역-일본어 번역-한국어 번역으로 이어지는 번역의 계보를 더듬어 러시아 소설이 번역되는 과정과 번역을 둘러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투르게네프 소설 번역의 계보

영국에서 러시아 문학에 주목하고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이다. 하지만 이후 1920년대까지 영국을 휩쓸며 미국으로까지 퍼진 러시아 문학의 대 유행은 콘스탄스 가넷(Constance Garnett)⁹⁾이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투르게네프를 시작으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체호프까지 콘스탄스 가넷은 혼자 번역했으며 80여권에 이르는 번역서에는 중요한 러시아 정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¹⁰⁾. 더욱이 특정 작가나 작품의 유행은 콘스탄스가 당시 어떤

9) 콘스탄스(1861-1946)는 영국 브라이턴에서 출생하여 17세의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 정부장학금을 받으며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개인교사와 사서 등의 일을 하다 대영박물관 부관장 리처드 가넷의 아들인 작가 에드워드 가넷과 결혼하였다. 당시 대영박물관의 부속 도서관에는 혁명을 이론적으로 준비하는 망명 러시아인들이 모여들었고 에드워드 가넷의 집은 그들의 살롱 역할을 하였다. 언어에 재능이 있던 콘스탄스는 스테프나크, 펠릭스 볼코프스키 등 망명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어를 배워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Jefferson, G., *Edward Garnett: A Life in Literature*, Jonathan Cape Ltd, 1982, pp.10-30.

10) France, P., *The Oxford Guide To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Oxford

작품들을 번역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정도였다. 콘스탄스는 투르게네프의 소설을 1894년부터 1899년까지 주로 번역하였고, 톨스토이는 1901년부터 1904년, 도스토옙스키는 1912년부터 1920년, 체호프는 1915년부터 1926년, 고골은 1922년부터 1928년, 게르첸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번역하였고, 곤차로프(1894), 오스트롭스키(1899), 고리키(1902)의 작품도 번역하였다¹¹⁾.

독자들뿐만 아니라 작가들에게도 러시아문학의 영향은 매우 컸다. 영국의 외국문학 번역사를 망라하여 정리한 피터 프랭스(Peter France)는 다음과 같이 러시아 소설 번역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소설이 영국 소설에 끼친 영향은 너무도 커서 단지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당시의 문학계 전체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을 받은 콘래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로런스, 체호프의 영향을 받은 캐서린 맨스필드 등. 이들은 단지 그들 작품의 뿌리를 러시아 소설들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작가들보다 좀 더 큰 영향을 받은 작가들일 뿐이다...버지니아 울프의 여러 에세이에 나타나는 것처럼 블룸스버리(Bloomsbury)¹²⁾ 또한 콘스탄스 가넷의 놀라운 번역 업적에 큰 영향을 받았다¹³⁾.

특히 영국의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는 콘스탄스 가넷의 남편이자 작가인 에드워드 가넷에게 쓴 1902년 6월 10일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안나 카레니나』를 훌륭하게 번역한 아내에게 나의 애정 어린 안부

University Press, 2007, p.582.

11) Jefferson, Ibid., p.160.

12) 블룸스버리에 있는 버지니아 울프의 저택을 살롱으로 삼아 포스터를 비롯한 당시의 유명 작가, 평론가, 철학자, 예술가들이 모임을 가졌다.

13) France, Ibid., p.591. 모든 인용문 번역은 필자에 의함.

를 전해 주게. 작품 자체는 별로 대단치 않네만, 그래서 그녀의 재능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지.”¹⁴⁾

콘스탄스가 영국에서 번역한 영역본들은 거의 동시에 미국에서도 출판되었다. 미국에서 출판된 콘스탄스의 70여 권의 러시아 소설 번역서에는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소설들을 포함하여 수백 편의 체호프 단편과 두 권의 희곡, 투르게네프의 주요 작품들, 톨스토이의 거의 모든 작품들, 곤차로프, 오스트롭스키, 고리키 등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콘스탄스 가넷이 없었다면 19세기의 러시아 소설들이 그렇게 빠르게 20세기 초의 미국 문학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¹⁵⁾.

콘스탄스 가넷의 영역은 영미 문학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러시아문학 수용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1888년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가 투르게네프의 연작 단편집 『사냥꾼의 일기』중 「밀회(あひゞき)」와 「세 번의 만남(めぐりあひ)」을 번역하여 소개한 이후, 메이지 문학계의 투르게네프 수용은 후타바테이 시메이와 더불어 콘스탄스의 번역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 일찍이 지적되어 왔으며, 다이쇼와 쇼와 시기까지 도스토옙스키와 체호프의 영역 저본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¹⁶⁾.

일본에 소개된 러시아작가 가운데 투르게네프는 가장 빨리 소개된 작가 중 하나이다¹⁷⁾.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니힐리스트라는 말을

14)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이해승 옮김, 『나보코프의 러시아 문학 강의』, 을유문화사, 2012, p.282. 이 편지는 나보코프가 『안나 카레니나』에 대한 콘래드의 평가와 콘스탄스의 번역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 콘래드와 같은 대 작가들이 콘스탄스의 러시아 소설 번역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잘 알 수 있는 언급이다.

15) Remnick, D., *The Translation Wars*, THE NEWYORKER., 2006.11.7.

16) 野村孝夫, 「C. ガーネット譯『罪と罰』管見: センナヤ廣場, 水晶宮, 豌豆王」, 『中京大學教養論叢』33(2), 1992, p.385.

17) 많은 연구에서 후타바테이 시메이의 투르게네프 번역을 최초의 러시아 문학 번역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의 러시아문학 번역은 메이지 16년(1883) 다카스

소설 『아버지와 아들』에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허무당 운동을 자신의 몇몇 작품에서 다루었고, 만년을 파리에서 보내다 1883년 그곳에서 서거했다. 그 무렵 일본에서는 마침 국회개설을 약속한 조칙이 내려져 메이지 14년(1881)을 중심으로 자유당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유민권운동 활동가들 중에는 러시아 허무당의 활동을 동경하고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고, 파리에서 활동하는 투르게네프를 망명한 러시아 허무당의 대표라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이 주재하는 신문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메이지 12년(1879)의 『조야신문(朝野新聞)』이 투르게네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그에 대한 소개일 것이다¹⁸⁾.

이 시기에 허무당에 관한 문헌이 4, 5종 번역, 출판되기도 하였고 그러한 책에는 투르게네프에 관해,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주인공 바자로프의 사상이 상세히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후타바테이도 처

지스케(高須治助, 1859-1909)가 『로국기문 화심집사록(露國奇聞 花心蝶思錄)』(1883, 法本書屋)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푸쉬킨의 『대위의 딸』이다. 이 번역은 동양에서 푸쉬킨을 소개한 최초의 번역이기도 하다. 다카스는 『대위의 딸』에서 연애 소설적인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상세히 번역했다. 최근까지 일본에서도 그의 번역이 영어에서의 ‘중역’이며 게다가 번역이라기보다 조잡한 ‘번안’이라는 이유로 상세한 검토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新日本古典文學大系明治編 十五 翻譯小説集二』(2003)에서 『화심집사록』을 면밀하게 교정하고 주석을 더한 야스 이 료헤이(安井亮平)는 자신이 발견한 오역 몇 가지는 영어 문장의 번역을 통해서는 있을 수 없는, 러시아어 특유의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번역연구자 야나기 다 이즈미(柳田泉)의 조사, 연구로 다카스가 도쿄외국어학교 러시아어과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러시아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영역에 의한 세계문학 수용이 활발했던 메이지 10년대(1870년대 후반-1880년대 중반)에 러시아어를 습득하여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번역자는 매우 드문 존재였다(加藤百合, 『明治期露西亞文學翻譯論攷』, 東洋書店, 2012, pp.2-6).

18) 昇曙夢, 「ロシア文學の傳來と影響」, 『ロシア文學研究 第2集』, ソヴエト研究者協會文學部會 編, 新星社, 1947, pp.223-224.

음에는 투르게네프의 사상적인 면에 경도된 듯, 메이지 19년(1886) 『통속 허무당형기(通俗虛無黨形氣)』라는 표제로 『아버지와 아들』을 번역했으나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메이지 21년(1888) 『국민의 벗(國民の友)』7, 8월호에 투르게네프의 단편집 『사냥꾼의 수기』중 『밀회(あひゞき)』를 번역하였다. 후타바테이가 투르게네프 원작의 『밀회』를 번역하며 언문일치에 의한 일본 근대문학 언어의 초석을 구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이다. “『밀회』가 유명한 것은 원문에 충실한 ‘주밀문체’와 언문일치체를 결합시킨 새로운 문체를 만들어 냈으므로, 형식과 내용이 후래의 메이지 문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있다”¹⁹⁾는 야나기다(柳田)의 평가는 후타바테이의 번역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후타바테이가 번역한 투르게네프 작품은 『밀회(あひゞき)』, 『세 번의 만남(めぐりあひ)』를 비롯하여 장편 『루딘』에 이르기까지 아홉 편에 이른다.

후타바테이가 초기 자신의 번역 방침으로 밝힌 “검표, 마침표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원문에 검표가 셋, 마침표가 하나 있으면, 역문에도 또한 마침표 하나, 검표 세 개를 붙이는 식으로 원문의 어조를 옮겨야 한다”²⁰⁾는 이 전설적인 문장은 후타바테이의 번역을 논할 때 반드시 인용되며 번역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일종의 비유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카무라(中村光夫)는 이러한 번역 방법으로 『밀회』와 『세 번의 만남』에서 구두점의 의미가 적은 종래의 일본문과는 전혀 다른, 마치 노래와 같이 7, 5조가 연이어 이어지는 새로운 문장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²¹⁾. 즉 후타바테이 초기 번역문체의 특징은 일본어 번역문을 낭독할 때 나타나는 음성적인 원문예의 충실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번역 문

19) 柳田 泉, 『明治初期翻譯文學の研究』, 春秋社, 1961, p.139.

20) 二葉亭四迷, 「余が翻譯の標準」, 『二葉亭四迷全集 9』, 岩波書店, 1953, p.151.

21) 中村光夫, 『二葉亭四迷伝』, 講談社, 1993, pp.82-86.

체는 후타바테이가 소리내어 읽거나 들었을 때 구독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인도네이션으로 인해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 러시아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타바테이는 이와 같은 러시아어의 특성을 외국어학교 시절 러시아인 교사들의 독특한 수업 방식에서 체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타바테이가 재학했던 메이지 10년대(1878-1887) 도쿄외국어학교 노어과 수업은 러시아 김나지움과 거의 같은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상급생이 듣는 니콜라이 그레이의 러시아문학 강의에서는 교과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낭독하는 문학작품 듣고 이어서 곧바로 작품 분석 및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를 해야 했다²²⁾. 러시아인 교사가 문학서를 강단에서 낭독하며 들려주고, 학생은 이를 듣고 분석하는 수업이 매일 계속되는 이 시대의 독특한 어학수업은 후타바테이에게 러시아어의 리듬이나 인도네이션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게 된 요인이 된 것이다²³⁾.

이와 같은 배경에서 번역된 후타바테이의 『밀회』와 『세 번의 만남』번역은 당대의 앞선 독자이자 작가인 구니키다 돗포(國木田獨步)나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는 물론이고 당시 청년문인이었던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돗포는 특히 매우

22) 中村光夫, 위의 책, pp.44-55.

23) 노어과에서 교편을 잡았던 러시아인 교사의 일부는 러시아 혁명을 준비했던 나로드니키, 즉 당시로서도 유럽의 인권사상이나 역사의식에 조예가 깊었던 청년 귀족들이었으며 문학이나 사회사상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후타바테이 시메이, 사가노야 오무로(嵯峨の屋おむろ) 등 노어과 출신자들의 일부를, 메이지 시기 일본인 학생에게 공통된 강한 입신출세, 실업지향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들이 초기 러시아어 교육을 담당하였기에 노어과 교육은 커리큘럼이 정비되어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텔리겐차를 기를 수 있는 높은 수준을 갖추 수 있었고 또한 러시아 인문과학의 이입으로 일본의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남겼다(加藤百合, 위의 책, pp.23-25).

큰 영향을 받은 작가로, 그의 출세작 『무사시노(武藏野)』가 그 영향 하에서 쓰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애용해 하지않던 ”회고하고, 경청하고, 묵상하라“는 구절은 후타바테이의 『밀회』에서 따온 것이다²⁴⁾. 후타바테이의 『밀회』번역에 대해 당시의 청년 문인들이 받은 충격은 다야마 가타이의 다음과 같은 감상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번역이, 그 번역의 언문일치가 얼마나 신기한 느낌을 당시의 문학청년에게 주었는가, 얼마나 진기하고 경이로운 느낌을 그 당시의 지식계급에게 주었는가. 실로 나조차도 그 문장을 보고 경악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아...이렇게도 문장을 쓰려면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세히, 면밀히!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상해보면 알 것이다. 그 당시의 한문 혼독체 문장 속에서, 구두점도 무엇도 없이 죽 이어지는, 어떤 변화도 없이 길게만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아니? 와! 와!, 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문장이 나온 것이니까. 또한 구절이 짧고 변화가 많은, 자연을 묘사한 문장이 나온 것이니까. 당시 우리 문학청년들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른다. 모친에게도 소리 내어 읽어주고 형이나 동생에게도 읽어주었다. 특히 저 마지막 ‘아아 가을이다! 빈 수레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부분에서는, 무엇이라 말 할 수 없는 느낌을 내게서 자아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들판에 나가더라도 하면 언제나 나는 그 문장이 떠올랐다²⁵⁾

후타바테이는 자신의 번역 방법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낯설고 읽기 힘든 문장에 당시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작의 느낌이나 감정의 흐름이 그대로 일본어로 옮겨진 듯한 독특한 뉘앙스는 젊은 문인들에게 청신한 인상을 주며 새로운

24) 木村毅, 文芸東西南北—明治・大正文學諸斷面の新研究, 平凡社, 1997, p.144.

25) 田山花袋, 『近代の小説』, 近代文明社, 1923, pp.6-7.

표현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²⁶⁾.

러시아어 원문으로부터 러시아 소설을 직접 번역했던 후타바테이의 뒤를 잇는 번역자가 노보리 쇼무(1878-1958)이다. 노보리 쇼무는 러시아문학 전체를 종합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끊임 없이 러시아문학을 번역, 연구하여 150권이 넘는 저작을 출판했다. 고골의 『검찰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톨스토이의 『부활』, 『어둠의 힘』,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학대받는 사람들』, 쿠프린의 『결투』, 고리키의 『나락』, 아르치바세프의 『사냥』 등을 번역했고, 여러 러시아문학 연구서를 저술했다. 또한 메레지코프스키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코잔의 『프롤레타리아 문학론』, 루나차르스키의 『마르크스주의 예술론』 등의 이론서와 평론을 번역하였다²⁷⁾.

노보리 쇼무(昇曙夢)가 당대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잡지에 소개한 것이 일본 자연주의 문학과 발생시기인 1908-1909년이고, 『신소설』, 『와세다문학』, 『문학세계』 등의 잡지에 발표된 번역물을 모아 두 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 1910-1912년 무렵이다. 또한 1915년부터 와세다 대학에서 러시아문학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이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1918년 출판한 책이 『로국근대문예사상사(露國近代文藝思想史)』이다. 1922년부터는 니혼대학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사 등을 강의하였다. 시기적으로 조선에 처음으로 다다이즘을 전파한 고한용이 1년 정도 노보리 쇼무의 강의를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승일, 임화, 김기림, 김춘수, 한설야 등이 니혼대학에 재학했을 시기이다²⁸⁾. 노보리 쇼무가 정열적으로 잡지와

26) 中村光夫, 『現代日本文學史・明治(現代日本文學全集 別卷 1)』, 筑摩書房, 1959, pp.67-68.

27) 高野槌藏, 「ロシア文學の紹介者昇曙夢」, 『ソフィア』8(1), 上智大學紀要, 1959, pp.75-78.

단행본 등을 통해 러시아 문학을 소개했던 1910년대와 20년대 일본에 유학했던 조선의 문학 청년들이 그의 러시아문학 번역과 평론을 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때 우리들의 이상은 마치 19세기 말 러시아 청년들이 느끼는 허무, 불안, 환멸의 세계에 붙들려 있었다....이상은 무너지고 현실은 맘대로 되지 않으나 그러나 무슨 이상에 붙타는 가슴엔 무언지 모를 불길이...”²⁹⁾ 타올랐던 식민지 시기의 청년들에게 러시아문학이 주는 영향이 얼마나 컸을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삼천리 제12권 6호(1940.6.1.)의 「『作品 愛讀』年代記」 기사에는 당시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20, 30, 40 전후의 시절에 심취한 작가, 작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가 실려 있는데, 김억, 박영희, 모운숙, 김기진, 함대훈, 이석훈, 김기림, 이광수, 김동인 등 거의 모든 작가들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체호프 등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애독했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문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러시아 문학 가운데 가장 먼저 번역된 투르게네프의 소설은 『밀회』이다³⁰⁾. 김억의 번역으로 『태서 문예신보』(1919.2) 15호와 16호에 연재되었고 1921년 『창조』에 채차 실렸다. 투르게네프의 소설 가운데 단행본으로 번역, 출판된 것으로는 1921년 홍난파가 번역한 『첫사랑』이 최초이고, 19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명희의 번역으로 『조선일보』에 연재된 후 1925년 단행본으로 출판된 『그전날밤』, 1926년 최승일이 번역한 『봄물결』과 조춘광의 『박행한처녀』까지 네 편이다³¹⁾. 이 외에 1920년대 중반 이후 카프를 중심으로 프로문학

28) 요시카와 나기(吉川颯), 『경성의 다다, 동경의 다다』, 이마, 2015, pp.45-54.

29) 함대훈, 「천국에서 온 음성」, 『조광』6(9), 1940.9, p.135.

30) 가장 먼저 번역된 러시아문학은 최남선이 번역한 톨스토이의 소설 『사랑의勝戰』(1909, 소년 2권 6호)이고, 투르게네프의 작품에서는 시 「문어구」(1914, 청춘 1권 1호)가 가장 먼저 번역되었다(김병철, 위의 책, pp.940-941). 「문어구」는 잡지에 번역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최남선으로 추정된다(김병철, 위의 책, p.368).

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등이 번역되었으나 부분역, 초역, 경개역 등으로 짧게 번역되어 신문, 잡지에 게재되었고 중편 혹은 장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충실히 전역(全譯)한 것은 홍난파의 번역이 유일하다³²⁾. 투르게네프가 식민지 조선에서 애독된 작가이고, 그가 소설 속에 담아낸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현실과 적절하게 삽입된 작가의 메시지가 식민지 현실의 질곡 속에 빠져 있던 조선의 작가들에게 쉽게 공명할 수 있는 요소로 다가왔다는 평가³³⁾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출판된 투르게네프의 소설은 홍난파의 번역본이 최초이고 해방 이전까지 단 네 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 작가들이 어떤 문학장 안에서 러시아문학의 영향을 받았는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4, 5년 전 조선 신문학의 초창기였던 만큼 일반으로 문학열이 지극히 높았던 모양이다. 학교 기숙사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문학의 기풍이 넘쳐서 자나 깨나 문학이 아니면 날을 지우기 어려우리 만큼 한 기세였다...소설로는 하야디와 졸라 등 영불의 문학도 읽히지 않은 바는 아니었으나 노문학의 열을 따를 수는 없었다. 푸쉬킨, 고리키를 비롯하여 톨스토이,屠格涅프 등이 가장 많이 읽히워서 『부활』이나 『그 전날 밤』의 이야기쯤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져서 사내(舍內)에서는 거의 통속적으로 전파되게 되었다³⁴⁾

31) 권영민·박중소·오원교·이지연, 앞의 책, p.95; 김병철, 앞의 책, pp.937-1026; 오창은·안용희·강우규, 앞의 보고서, pp.216-237.

32) 초역(抄譯)은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짧게 번역한 것, 경개역(梗概譯)은 대강의 줄거리만을 번역한 것을 말한다. 단편 소설을 제외하고 신문, 잡지에 1, 2회에 걸쳐 게재된 번역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된 것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조명희와 최승일의 번역본도 원본의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33) 권영민·박중소·오원교·이지연, 위의 책, p.59; 박성창, 「번역의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기: 한국근대문학과 러시아문학 수용」, 『한국민족문화』 제6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p.605.

34) 이효석, 「나의 수업 시대」, 『이효석전집 7』, 창미사, 1983, pp.156-157.

위 글은 1937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이효석의 「나의 수업 시대」 일부다. 이 글을 쓰기 14.5년 전이라면 1922, 23년경이다. 『그 전날 밤』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기 이전이며 ‘노문학 열’에 부응할 만큼 러시아소설이 많이 번역되지도 않았던 시기이다. 1920년대 초, 중반부터 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많이 읽힌 러시아소설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는 다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때 토론자 중 한 사람인 박완서 작가에게 청중석에 있던 한 학생이 물었다. “영향을 받은 외국 작가는 누구인가요?” 박완서 작가는 도스토옙스키, 발자크를 필두로 유럽 작가 몇 명의 이름을 말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이해가 가지 않는 듯한 얼굴로 한 번 더 손을 들고 물었다. “일본문학은 전혀 읽지 않으셨나요?” 이번엔 박완서 작가가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외국 작가 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나요? 일본문학이 외국문학이라는 발상은 우리 세대에 없어요. 우리는 젊었을 때 일본어 읽기를 강요받고 한국어 읽기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유럽문학도 전부 일본어 번역으로 읽었습니다³⁵⁾

1920년대에 문학서를 읽을 정도의 교육 수준을 지닌 지식인이라면 일본어 문해력을 갖춘, 일본어 번역본을 읽을 수 있는 이들이었다. 1920년대 초반부터 문학청년들이 러시아문학의 깊은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어 번역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은 일본에서의 세계문학 수용과 동시대적인 흐름 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5) 다와다 요코, 유라주 옮김, 『여행하는 말들-엑소포니, 모어 바깥으로 떠나는 여행』, 돌베개, 2018, p.86.

Ⅲ. 홍난파의 『첫사랑』 번역 양상과 일본어 저본

홍난파가 번역한 『첫사랑』³⁶⁾의 원작은 투르게네프가 1860년에 발표한 동명의 소설이다. 『근대번역사연구』에는 이쿠타 순게쓰(生田春月)가 번역한 『초연(初戀 ツルゲエネフ全集；第3編)』³⁷⁾이 홍난파 번역서의 저본으로 기술되어 있다. “개판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상당히 애독된 것 같다. 전체가 22장으로 장별되어 있다...1면에 First Love-Turgenev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역의 중역인 것 같으나 예문을 대비해 보면 우리말 역본의 직접 대본은 일역본임에 틀림 없다. 영역을 중역한 이쿠타 순게쓰의 일역본을 대본으로 했음이 그 文例의 대비에 의하여 알 수 있다³⁸⁾”는 『근대번역사연구』의 기술과 같이 홍난파는 첫 문장에서부터 이쿠타의 일역본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客들이몰려간지한참되여時計는十二時半을報하였다.(홍난파, p.1)

....客はみな疾くに辭し去つた。十二時半が打つた。(이쿠타, p.1)

다음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이픈을 이용한 주석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매우 충실하게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家庭教師라하는이는佛蘭西人인대自己가「爆裂彈과갓치」—Comme une bombe—一定處업시 露西亞에스뒤여드러왔다는남의말을恒常念頭에

36) 초판은 1921년 출판되었으나 김병철의 『근대번역사연구』에서 일역본과의 비교에 쓰인 번역본은 1922년 개역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1922년 개역판의 예문으로 일역본과 비교하였다.

37) 生田春月, 『初戀 ツルゲエネフ全集；第3編』, 新潮社, 1918.

38) 김병철, 위의 책, pp.537-538.

記憶하야... 어머니는恒常昂奮한모양으로嫉妬하고憤怒하며悲慘한生涯를 보냈섯다—그러나아버지의압해서는그런눈치도보이지안엇다。(홍난파, p.4)

その家庭教師といふのは佛蘭西人で、自分が「爆烈彈のやうに」— Comme une bonbe—露西亞に落ち込んで來たと思はれるのをひどく氣にしてゐた...母は悲しい生涯を送つた。始終昂奮した狀態にゐて、嫉妬しては腹をたてゝゐた—しかし父の眼の前ではなかつた。(이쿠타, p.6)

하지만 이쿠타의 몇몇 오역이나 누락된 번역이 홍난파의 번역본에서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번역사연구』에 홍난파 『첫사랑』의 저본으로 되어 있는 이쿠타 순게쓰의 번역과 본 연구에서 또 다른 저본으로 추정하는 후지나미 스이쇼(藤浪水處)의 『초연·산문시(初戀·散文詩)』³⁹⁾ 번역, 영일 대역본인 후지나미의 일역본에 함께 실려 있는 콘스탄스 가넷의 영어 번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썬-르게이·니코라에엿취는얼굴이던몸이던동그랗코體小한男子인데主人을쳐다보다가다시天井으로눈을向하면서、「내게는・・・」(홍난파, p.1)

セルゲイ・ニコラエキッチと云ふのは、丸くふくれた顔をした肥つた男であつたが、まづ主人を眺めて、それから眼を天井へ向けた。『私には・・・』(이쿠타, p.3)

39) 藤浪水處, 『初戀·散文詩』, 有朋堂書店, 1919.

40) 후지나미 스이쇼의 영일 대역본에 사용된 영역본이 콘스탄스 가넷의 영역본이라는 것은 후지나미가 대역본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홍난파가 후지나미의 번역본을 참고한 이상, 콘스탄스의 영역본 외에 다른 영역본을 참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セルゲイ・ニコラエヴィッチと云ふのは、明るい顔色をした、顔も、體も丸まるつこい小男であつたが、先づ主人を見詰め、それから眼を上げて、『私には・・・』(후지나미, p.3)

Sergei Nikolaevitch, a round little man with a plump, light-complexioned face, gazed first at the master of the house, then raised his eyes to the ceiling. 'I had...' (콘스탄스, p.2)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근대번역사연구』에 홍난파 번역서의 저본으로 되어 있는 이쿠타 순게쓰의 번역이 ‘둥그랗고 통통한 얼굴을 한 뚱뚱한 남자’인 반면, 콘스탄스와 후지나미 스이쇼의 번역은 ‘얼굴도 몸도 동글동글한 작은 남자’로 되어 있다. 홍난파가 콘스탄스와 후지나미의 번역을 기준으로 이쿠타의 오역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엇더케하면그사람들과親하게될가?—이것이아침에이러난後의나의첫生覺이었다。茶를마시기前에나는 쓸노나갔다。그러나담밋호로박사가지는안었다。또한사람도맛나보지못했다。(홍, p.11)

どうして彼女と知合になつたものだらう?—これが朝起きたときの私の最初の考であつた。

お茶の前に私は庭へ行つた、けれども垣根にはあまり近寄らなかつた。私は何人をも認めなかつた。(이쿠타, p.13)

「何うすれば、あの人達と昵懇(ちかづき)になれるだらうか」と云ふのが、翌る朝眼を醒ました時に第一に私の頭に浮んだ考へであつた。

朝のお茶の前に私は又庭へ降りて行つた。併し例の垣の方へは餘り近寄らなかつた。又誰も見え なかつた。(후지나미, pp.21-22)

'How can I make their acquaintance?' was my first thought when I waked in the morning. I went out in the garden before morning tea, but I did not go too near the fence, and saw no one. (Constance, p.20)

위 인용문에서도 이쿠타는 '어떻게 그녀와 친해지게 된 것일까'로 번역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로 번역한 콘스탄스와 후지나미이 번역과는 시제도 의미도 다르다. 이와 같이 홍난파가 이쿠타의 번역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한 것은 그것이 '오역'이라고 판단할 기준이 되는, 원본의 권위를 갖는 텍스트와의 대조를 의미한다.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르는 홍난파에게 영역본이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텍스트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내가야세킨公爵이오.당신은아마V氏의아드님이되시지요 (홍난파, p.14)

ええ、私がザシエキン公爵夫人ですよ。あなたは、たしかW様の御子息さんでしたね?(이쿠타, p.18)

アー、妾がそのザシエキン公爵で御座いますよ。してあなたはV某(なにがし)さんの御子息さんでしたね。(후지나미, p.31)

I am the Princess Zasyekin; and you are the son of Mr. V.? (콘스탄스, p.30)

『첫사랑』에서 화자인 '나'의 성은 '블라디미르'이고 이쿠타의 번역에서는 'W'로 번역되어 있다. 영어 번역본에 'V'로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쿠타의 단순한 오역이나 인쇄상의 실수로 볼 수 있다. 홍난파가 'W'가

아니라 ‘V’로 수정한 것은 후지나미의 번역뿐만 아니라 콘스탄스의 번역을 참고하여 이쿠타의 ‘W’가 오류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오역이나 번역 누락만이 아니라 홍난파는 두 일역본을 비교하여 보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판단한 문장을 취사 선택하였다. 다음 예문에서 이쿠타의 번역은 ‘자세킨 공작부인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로 번역할 수 있다. 홍난파의 번역은 후지나미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失禮을시다만은마님의셔써세킨公爵夫人이심닛가? (홍난파, p.14)

私はザシエキン公爵夫人にお目にかゝる光榮を有しませうか (이쿠타, p.18)

失禮で御座いますが、あなたがザシエキン公爵様の奥様で被居のですねか..... (후지나미, p.31)

이상과 같이 하이픈과 괄호를 사용한 덧말과 주석의 첨가, 문장과 어휘의 축자적 유사성 등에서 홍난파가 이쿠타 순게쓰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은 분명하나 이쿠타 번역본에 나타난 오역이나 누락된 부분이 홍난파의 번역에서 수정된 점이나 한자어의 유사성으로 보아 후지나미 스이쇼의 번역과 콘스탄스의 영역을 함께 참고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V. 홍난파의 『첫사랑』 번역에 나타난 특징

홍난파의 번역을 특징짓는 것은 먼저 그의 번역 목적이다. 홍난파는 자신의 번역서 서문에서 ‘세계적 문호’, ‘결작’, ‘명작’의 번역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을 조선의 청년들에 알리고 젊은이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20년 3월 20일부터 『매일신보』에 『쿠오 바디스』의 번역 「어디로가나」를 연재하기에 앞서 전일 게재된 1면의 연재 예고 기사 「小說連載豫告, 歷史宗教小說 어디로가나?, 波蘭文豪 시엔키에비츠 原作, 蘭坡 洪永厚 新譯」에는 다음과 같은 역자의 말도 함께 실려 있다.

넉가이와갓흔名作을唐突히翻譯한다흙은藝術의良心이나原著者에게對하야罪를避홀길아업지만은孤獨에彷徨하고暗黑에悲泣하는朝鮮青年을爲하야는적지안은慰安이되리라고生覺하야敢히붓을들기始作한것이다⁴¹⁾

「어디로가나」의 ‘역자의 말’과 유사한 번역 목적을 『첫사랑』의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가西洋文藝의譯筆을들기始作한後에처음으로紹介한것이이것이다. 이것은露國三大文豪中의一人인틀게네프의名作中의一인데...이名作一篇은足히우리나라青年男女一孤獨에泣하고暗黑에헤어매는者에게적지안은慰安을줄줄밋는다

홍난파는 이러한 서문을 통해 교육이나 계몽 등 공리적 목적 보다 세계 문학의 소개에 목적을 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고독’과 ‘암흑’

41) 홍난파, 「譯者의말」, 『매일신보』, 1920.3.19, 1면.

에 방황하고 눈물짓는 ‘조선청년’에게 ‘위안’을 주고자 한다는 것에서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고뇌가 ‘세계적 명작’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 사상이라는 점을 알려 격려와 위로를 주는 데 번역 목적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그의 번역 방법에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쿠타 순게쓰의 일역본을 충실히 번역하되 영역본이나 후지나미 스이쇼의 번역을 참고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번역 방법은 다른 번역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레 미제라블』을 번역한 『애사』에서는 저본의 오역을 수정하고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에 영어명을 병기하였으며, 『쿠오 바디스』를 번역한 『어대로 가나?』 번역에서는 고유명사의 영어명을 일람표로 만들어 책의 뒷면에 첨부하기도 하였다. 『나나』 번역에서는 『첫사랑』과 같이 다른 일역본을 참고하여 문장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복수의 일역본이나 영역본을 참고하여 꼼꼼히 번역하는 홍난파가 애초에 영역본이나 완성된 일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하지 않고 세부적 묘사와 배경을 생략하여 축약한 일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하는 이유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홍난파 번역의 세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서문에서 줄곧 ‘출판계의 어찌할 수 없는 사정상’ 작품을 짧게 줄인 경개역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개화기와 식민지 시기 최남선은 세 편의 동화와 아홉 편의 소설을 번역하여 가장 많은 외국 소설을 번역하였다. 하지만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결리버 여행기』 한 편 뿐이고 50쪽을 겨우 넘는 분량이다. 나머지는 자신이 창간한 잡지에서 매우 짧게 줄거리를 전하거나 단편 번역에 불과하다. 비단 최남선 뿐만이 아니라 1920년대까지 번역된 외국 소설은 신문에 장기 연재된 소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짧게 축약되거나 일부분만을 번역하여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

다. 그에 반해 홍난파는 중, 장편 소설을 단행본으로 번역하였으며, 아직 창작 소설조차 단행본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당시의 출판계 상황과 독서계의 풍토를 염두에 두고 애초에 비교적 짧게 번역된 일역본을 저본으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⁴²⁾.

V. 결론

이상과 같이 홍난파의 『첫사랑』은 이쿠타 순게쓰, 후지나미 스이쇼의 일역본을 저본으로, 두 일본어 번역가의 번역에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오역의 가능성이 있는 문장에서는 콘스탄스의 영역본을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영역-일본어역을 거친 삼중역이기는 하지만 『근대번역사연구』 및 근대 번역 연구에서 ‘경개역’, ‘축역’, ‘자의적’이고 ‘여러 차례 굴절되어 원문으로부터 떨어진 번역’이라는 비판과 달리 러시아어 원본에서 번역한 현대의 번역과 비교해도 내용상 원본에 충실히 번역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영역본을 참고하여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잘못된 저본의 추정이나 서지 연구에 대한 무관심, 전무한 텍스트 비교 및 분석 연구가 홍난파의 번역과 1920년대 번역 전반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근대 문학가들에게 러시아문학이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소설’이라는 문학이 근대적 장르로서 자리 잡기

42) 1920년대부터 한성도서주식회사와 박문서관 등에서 번역 전기와 번역 소설 등이 출판되었으나 출판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시기는 193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김종수, 「일제 강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 『서울학연구』 제35집, 서울학연구소, 2009, pp.258-261). 홍난파의 번역은 잡지 『삼광』에 연재를 시작한 1919년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으며 1926년 톨스토이의 단편 번역 이후 번역 작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전, 번역문학은 일본을 통해 접한 일본어 번역이든, 한국어 번역본이든 한국 근대 소설문학의 확립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975년의 서지 연구에 대한 재검토와 텍스트 분석, 연구를 통한 재평가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후속 연구로 이어지는 홍난파의 도스토옙스키 소설 『가난한 사람들』의 번역과 톨스토이 단편 번역 연구는 물론이고 홍난파의 다른 번역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및 번역의 계보 연구를 통해 홍난파의 번역 및 1920년대 초반의 번역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를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현조, 「〈보환연〉과 〈허영〉의 동일성 및 변안 문학적 성격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제4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pp.87-116.
- 권영민, 박종소, 오원교, 이지연, 『한국 근대문학의 러시아 문학 수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 김종수, 「일제 강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헌서적의 근대적 위상」, 『서울학연구』 제35집, 서울학연구소, 2009, pp.247-272.
- 김창욱, 「홍난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음악사학보』 제29집, 한국음악사학회, 2002, pp.177-198.
- 다와다 요코, 유라주 옮김, 『여행하는 말들-엑소포니, 모어 바깥으로 떠나는 여행』, 돌베개, 2018.
- 박진영, 「홍난파와 번역가의 탄생」, 『코기토』 제71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pp.61-86.
- 「번역가의 탄생과 문학청년 홍난파의 초상」, 『근대서지』 제8집, 근대서지학회, 2014, pp.181-202.
- 박성창, 「번역의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기: 한국근대문학과 러시아문학 수용」, 『한국민족문화』 제6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pp.591-606.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이해승 옮김, 『나보코프의 러시아 문학 강의』, 을유문화사, 2012.
- 삼천리, 「作品 愛讀」 年代記」 12(6), 1940.
- 오창은·안용희·강우규, 「국립한국문학관 자료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17, pp.216-237.
- 요시카와 나기, 『경성의 다다, 동경의 다다』, 이마, 2015.
- 윤경애, 「홍난파의 [레 미제라블] 번역 양상과 번역의 계보 고찰」, 『일본어학연구』 제59집, 한국일본어학회, 2019, pp.141-158.
- 이재춘, 「홍난파의 [허영] 연구」, 『우리말글』 제7집, 우리말글학회, 1989, pp.143-154.
- 이효석, 「나의 수업 시대」, 『이효석전집 7』, 창미사, 1983.
- 이희정, 「1920년대 초기의 『매일신보』와 홍난파 문학」, 『어문학』 제98집, 한국어문

- 학회, 2007, pp.239-268.
- 함대훈, 「천국에서 온 음성」, 『조광』6(9), 1940.9, p.135.
- 홍난파, 「譯者의말」, 『매일신보』, 1920.3.19, P.1.
- , 『첫사랑』, 한일서점, 1922.
- 生田春月, 『初戀 ツルゲエネフ全集 ; 第3編』, 新潮社, 1918.
- 加藤百合, 『明治期露西亞文學翻譯論攷』, 東洋書店, 2012.
- 木村毅, 『文芸東西南北—明治・大正文學諸斷面の新研究』, 平凡社, 1997.
- 高野槲藏, 「ロシア文學の紹介者昇曙夢」, 『ソフィア』 8(1), 上智大學紀要, 1959, pp.75-78.
- 田山花袋, 『近代の小説』, 近代文明社, 1923.
- 中村光夫, 『現代日本文學史・明治(現代日本文學全集 別卷1)』, 筑摩書房, 1959.
- , 『二葉亭四迷伝』, 講談社, 1993.
- 昇曙夢, 「ロシア文學の傳來と影響」, 『ロシア文學研究 第2集』ソヴェト研究者協會文學部會 編, 新星社, 1947, pp.221-247.
- 野村孝夫, 「C. ガーネット譯『罪と罰』管見: センナヤ廣場, 水晶宮, 豌豆王」, 『中京大學教養論叢』33(2), 1992, pp.385-412.
- 藤浪水處, 『初戀・散文詩』, 有朋堂書店, 1919.
- 二葉亭四迷, 「余が翻譯の標準」, 『二葉亭四迷全集 9』, 岩波書店, 1953.
- 柳田泉, 『明治初期翻譯文學の研究』, 春秋社, 1961.
- France, P., *The Oxford Guide To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Jefferson. G., *Edward Garnett: A Life in Literature*, Jonathan Cape Ltd, 1982.
- Remnick., D., *The Translation Wars*, THE NEWYORKER., 2006.11.7.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05/11/07/the-translation-wars>
2018.12.1.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the Russian Novels of
Hong, Nan-Pa(1)

- Focusing on the Aspect and Genealogy of Translation of

First Love by Hong, Nan-Pa -

Youn, Kyung-ae

The objectiv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the genealogy of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text into English-Japanese-Korean,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spect of translation through the text comparison of the original script and translation into Korean, focusing on the bibliographic research revealing the original script of Russian novel translation translated by Hong, Nan-Pa. As a pioneer in the Western music of modern Korea and a famous musician creating numerous masterpieces, Hong, Nan-Pa is also a translator who translated many world-famous great novels. Out of them, he largely contributed to the translation and acceptance of Russian novels by making the complete translation of medium/full-length novels by Turgenev and Dostoevskii for the first time, solely translating Dostoevskii's novels in the colonial era, and also translating Tolstoy's short stories. However, in the existing researches, Hong, Nan-Pa's translation has been underestimated for the reason like his translation is excessively abbreviated not as a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or English version, but as a second-hand translation by way of Japan. This evaluation is greatly originated from wrong researches on Japanese source scripts in the *Research o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Translated Literature*.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Hong, Nan-Pa was not only faithful to the source script in Japanese just like the modern translation method, but also correcting the errors in

Japanese translations by referring to English translations. Like this, Hong, Nan-Pa's translation of Russian novels could be evaluated not as the translation like abbreviation or adaptation of the 1910s or the enlightenment period, but as the modern translation faithful to the original scripts.

Key Word : Trugenev, First Love, Russian novels, modern translation, Hong, Nan-Pa

윤경애

소속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후연구원

전자우편 : yka9511@gmail.com

이 논문은 2019년 5월 10일 투고되어 2019년 6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6월 12일 게재 확정됨.
--

